

# “맥주박이 과자로 변신”... 맥주업계, 친환경 업사이클 주도

(맥주를 짜고 남은 찌꺼기)

푸드 업사이클, 新 소비트렌드 각광  
맥주 부산물로 제품 개발·사업화  
에너지바, 피자 등 다양한 활용

최근 맥주업계 내에 스타트업과 손잡고, 재활용을 넘어선 업사이클링 붐이 일고 있다.

업사이클링은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을 새 상품으로 만드는 활동으로 자원을 재활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창출하고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더불어 최근 높아진 친환경에 관한 관심을 충족시키고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환경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최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에 달하는 음식폐기물 문제는 심각한 사안이다. 매년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40억 톤의 음식 중 3분의 1이 버려지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배달 및 외식 소비가 증가하며 음식물 자원 낭비가 심각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푸드 업사이클은 국내엔 아직 생소하지만, 해외에선 이미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



리하베스트가 서울 강남구 카브루 플래그십 스토어 '카브루 브루펍'에서 수제맥주 부산물을 활용한 푸드업사이클링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리하베스트 민영준 대표, 카브루 마케팅팀 나영수 부장, 리하베스트 김도희 본부장. /카브루

오래다. 미국의 유기농 식료품 유통업체 홀푸드마켓은 올해 식품 트렌드 중 하나로 '업사이클 식품'을 선정하 바 있다. 앞서 세계 최대의 맥주회사 AB인 베브는 맥주 제조 후 남은 곡물을 활용해 음료를 제조하는 스타트업 기업 캔버스에 투자했다.

비슷한 사업이 최근 국내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주류업계는 맥주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맥주박(맥주를 짜고 남은 찌꺼기)을 활용한 식품 개발 및 사업화에 본격 나섰다. 그간 국내에

선 규제 탓에 맥주를 만들 때 나오는 맥주박이 영양분이 풍부한 재료임에도 버려지거나 가축 사료로만 사용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관련 규제가 개선되면서 주류 제조시설에서도 주류 이외의 제품을 생산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맥주 부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됐다.

국내 맥주 판매 점유율 1위 카스를 보유한 오비맥주는 푸드 업사이클(재활용) 전문 스타트업 리하베스트와 업무 협약을 맺고 맥주 부산물을 이용한 제



오비맥주 리하베스트 카스 맥주박 리너지바 흑임자맛

품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리하베스트는 국내 최초 푸드 업사이클링 전문 기업으로 제품생산과정에서 폐기되던 식혜박, 맥주박 등 영양성분이 풍부한 부산물에 고부가가치를 더해 친환경적인 식품을 개발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지난해 12월 카스의 부산물로 만든 에너지바 '리너지바'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처음 공개하고 지난 7일 펀딩을 시작했다. 목표 금액 5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3000여만원의 펀딩액을 기록했다.

오비맥주는 향후 에너지바 외에도 그레놀라, 시리얼 등 간편대체식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성이 충분하다면 밀가루를 대체할 원료로서의 가능성도 보고 있다.

국내 1세대 수제맥주기업 카브루도 리하베스트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제맥주업계로서는 처음으로 '수제맥주박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카브루와 리하베스트는 수제맥주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맥주박을 원료로 한 '리너지 가루'를 활용해 기존 리하베스트에서 선보였던 스낵 형태 외에 피자, 베이커리 등 새로운 메뉴를 개발 및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곡물을 사용하는 수제맥주박은 단백질, 식이섬유 등이 풍부해 맛은 물론 건강에도 더 유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제품은 피자 형태로, 상반기 내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카브루는 완성된 제품을 자사에서 운영하는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카브루 브루펍'에서 정식 메뉴로 론칭할 예정이다. 이후 밀키트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도 고려하고 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 “홍삼 먹은 유산균으로 우리아이 변비 탈출” ‘강화도 우리마을 콩나물’, 전국서 만난다

‘홍이장군 키즈랩 프로바이오틱스’  
KGC인삼공사, 홍삼 이용 특허 공법  
진세노사이드·홍삼다당체 등 함유

KGC인삼공사가 아이 장건강을 위한 ‘홍이장군 키즈랩 프로바이오틱스’ 신제품을 출시하며 어린이 유산균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22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1위 정관장은 국내 최초로 어린이 홍삼을 개발한 정관장 연구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홍이장군 키즈랩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린이 연구소를 뜻하는 키즈랩과 장건강 소재인 프로바이오틱스의 합성어로 유산균을 과학적인 포물러 방식으로 설계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다.

‘홍이장군 키즈랩’ 연구진은 세계 최초로 홍삼 식이섬유를 먹고 자란 유산



홍이장군키즈랩프로바이오틱스(90포)

균이 홍삼을 먹지 않은 유산균 대비 최대 1.6배 증식 능력이 향상됨을 밝혀내고, 이를 기반으로 ‘홍삼을 이용한 유산균 배양 특허 공법(RG PRO)’ 기술을 적용했다. 홍삼 식이섬유에는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진세노사이드, 홍삼다당체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또,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프로바이

오틱스 7종을 균형있게 배합하고 균종의 영양원(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 4종까지 함유한 신바이오틱스 기술로 정관장 연구진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녹아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원활한 배변활동, 장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식약처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조효정 기자

풀무원 장애인 자립 돕는 가치소비

풀무원은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강화도 우리마을’ 콩나물에 새 브랜드를 붙여 전국에 판매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강화도 우리마을’은 화재로 전소됐다가 2년여 만에 각계의 성금으로 신축된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다. 풀무원은 ‘강화도 우리마을’ 콩나물 공장의 자활을 돕기 위해 이 마을 콩나물을 전국에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풀무원은 이번엔 인천시 강화군 온수리 새 공장에서 생산되는 ‘국산콩 무농약 콩나물’을 자사의 사회공헌 대표 브랜드인 ‘로하스투게더’ 1호 제품으로 출시한다. 로하스투게더는 나의 건강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치실천활동을 통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표방하는 풀무원의 사회공헌 브랜드다.

풀무원은 소비자들에게 이 콩나물 제품이 강화도 우리마을 발달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가치소비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해 적극 알려 나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강화도 우리마을의 콩나물 공장이 화재로 전소되는 큰 화재가 발생했다. 하루아침에 공장이 잿더미가 되면서 발달장애인 근로자 50명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실의에 빠졌다.

콩나물 생산 기술 지도 및 판매를 지원해오던 풀무원은 강화도 우리마을 공장 재건 지원에 적극 나섰다. 풀무원은 콩나물 연구원, 나물 공장 설비 전문가로 구성된 공장 설계 TFT를 구성해 새 공장 건설 지원에 팔을 걷어 부쳤다. 풀무원은 신축 콩나물 공장을 발달장애인들의 근무 특수성을 고려한 ‘스마트 팩토리’로 설계했다. 콩나물 제조 공정에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하고,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위험한 계단 대신 경사로를 만들어 근무 동선을 짰다.

/조효정 기자

## 현대백, 업계 최초 ‘토탈 인테리어 서비스’

미아점 8층에 선포

현대백화점이 리빙 콘텐츠 차별화를 위해 업계 최초로 주방과 욕실 등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포함한 ‘토탈 인테리어 서비스’를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미아점 8층에 토탈 인테리어 전시장 ‘리바트 미아점’을 오픈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장 규모는 714㎡(216평)로, 현대백화점 15개 전 점포의 리빙 브랜드 매장 중 가장 크다.

‘리바트 미아점’은 현대리바트의 소파와 식탁, 수납장 등 일반 가구부터 주

방 가구(리바트 키친), 욕실(리바트 바스) 등은 물론, 조명·휴파니싱 소품까지 총망라된 토탈 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리바트 미아점’은 리빙존과 키친·바스존으로 구성된다. 리빙존은 거실과 안방, 서재 등 공간별 컨셉트에 맞춘 200여 종의 가구가 전시되며, 키친·바스존에는 주방과 욕실 제품을 선보이는 10여 개 쇼룸이 설치된다. 특히 200여 종의 다양한 주방가구용 도어와 타일, 상판용 석재 등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선진 기자 tree6834@

아모레퍼시픽 ‘러’

‘헤리티지 탈모증상완화’ 출시

러가 건강한 두피 환경을 만들고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헤리티지 탈모증상완화’ 라인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의 탈모·두피 삼품 전문 브랜드 러는 오랜 연구 끝에 두피에 비타민이 부족할 경우 건조, 각질, 가려움, 뾰루지 등의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으며 두피 건강에도 비타민 영양 성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러 탈모증상완화 샴푸는 8가지 두피 비타민을 함유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 친환경 패키지 ‘가그린 어린이용’ 리뉴얼

동아제약 재활용 용이한 인몰드 라벨

가그린 어린이용 3종을 리뉴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롭게 바뀐 가그린 어린이용은 재활용이 용이한 인몰드 라벨 등 친환경적인 요소를 적용했다. 인몰드 라벨은 제품 접착 화학물질을 줄여 라벨 제거가 쉽다. 뜯는 곳 표시를 가시화하여 소비자들이 라벨을 제거하여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

도록 유도했다. 앞서 2019년에는 가그린을 담은 용기도 투명하게 바꿨다.

이와 함께 멸종 위기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반달가슴곰, 수리부엉이 등 총 9종의 멸종 위기 동물을 디자인에 담았다. 향후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멸종위기종 보호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어린이용 가그린은 사과맛, 딸기맛, 풍선껌맛 3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